

9월 1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1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뉴욕 `살아난 경기모멘텀`..다우 0.5%↑</p>	<p>뉴욕증시가 15일(현지시각) 장후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장중 상승세로 돌아섰음. 경제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된 가운데 버냉키 연준 의장이 "리세션이 끝나고 있다"고 밝힌 점이 경기모멘텀을 자극했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56.61포인트(0.59%) 상승한 9,683.4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86포인트(0.52%) 오른 2,102.64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3.29포인트(0.31%) 상승한 1,052.63을 각각 기록했음. 뉴욕증시는 오후 1시까지만 해도 혼조세를 지속했음.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좋았지만 때 맞춰 대형 소매점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임.</p> <p>8월 소매판매는 최근 3년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9월 뉴욕지역 제조업 지표도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음. 8월 생산자물가지수도 예상보다 높았지만 경기회복 징후로 받아들여졌음. 그러나 미국 최대의 가전 소매점인 베스트바이와 역시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가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며 소매지표 호재를 희석시켰고 최근 6개월 연속 상승하며 11개월래 최고치로 상승한데 따른 가격부담도 시장을 하락압박했음. 하지만 이날 경제지표들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강화되면서 오후들어 매수세가 늘어났고 특히 경제지표 개선과 더불어 "미국의 리세션이 끝나가고 있다"는 벤 버냉키 연준의 장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살아났음. 여기에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투자심리에 도움을 주었음. 또 월가의 강세론자인 라즐리 비리니이가 최근 6개월간 랠리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지가 많다고 밝힌 점도 투심(投心)을 자극했음. 이날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의 블루칩 종목중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17개, 내린 종목은 13개로 상승종목이 앞섰음.</p>
<p>버냉키 "리세션 끝나가고 있다"</p>	<p>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리먼 브러더스 파산 1주년을 맞아 행한 강연에서 미국의 리세션이 끝나가고 있다고 언급해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경기회복 기대감을 자극했음. 버냉키 의장은 이날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강연 직후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리세션이 현재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다만,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경계감도 늦추지 않았음. 버냉키는 "일부 전망 기관들은 경제가 회복세에 놓여있다고 하지만, 내년 성장속도가 완만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기관들의 전망"이며 "성장세가 완만하면 실업률 하락세도 느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음.</p>

제목	주요 내용
워렌 버핏 "주식 사들이고 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유명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는 언급이 투자심리에 도움을 주었음. 라즐리 비리니이와 같은 강세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인 점도 투심(投心)을 자극했음. 워렌 버핏은 이날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신의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음. 비리니이 어쏘시에이즈의 라즐리 비리니이 사장의 발언도 호재가 되었음. 그는 "주가와 구리값 상승은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현재 강세장이 진행중이며 추가 상승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음. 그는 지난 5월 20일 S&P 500 지수가 2~3년내로 1,7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음. 이는 당시 종가대비 88% 높은 수준이며, 그의 전망 이후 S&P 500 지수는 지금까지 16% 가량 상승한 상태임.
美 8월 소매판매 2.7% ↑..3년래 최대폭 상승	미 상무부는 8월 소매판매(계절조정)가 전월대비 2.7% 급증했다고 밝혔음. 시장에서는 1.9% 증가가 예상됐었음.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음. 여기에도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주유소의 매출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음. 이같은 증가폭은 최근 3년래 가장 컸고 0.2%(수정치) 감소했던 전월 수치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 시장의 예상치인 1.9%도 크게 웃돌았음. 자동차 판매를 제외할 경우에는 8월 소매판매가 전월비 1.1% 증가했고 이 역시 예상치인 0.4%를 크게 상회했음.
美 8월 생산자물가지수 1.7%↑..에너지 영향	미 노동부는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계절조정)가 전월대비 1.7% 상승했다고 밝혔음.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시장의 전망치(0.8%)를 크게 웃돌았음.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역시 경기회복 징후로 해석하는 분위기였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 상승률은 0.2%에 그쳤음. 이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는 나오지 않았음. 이와 관련해 연준은 경기회복을 위해 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여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 역시 현재의 물가수준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음.
국제유가 3% 급등하며 다시 70달러선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며 배럴당 70달러선에 다시 올라섰음. 경기회복 기대감과 달러화 약세, 원유재고 감소 기대감 등이 맞물렸음.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2.07달러(3%) 급등한 70.93달러로 거래를 마쳤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